

2) 사기장곡(砂器場谷)

옛날에 사기(砂器)를 구웠다는 곳으로, 현재도 그 유품(遺品)이 간혹 출토된다.

3) 쇠치봉(鼎峙峰)

가마솥의 발처럼 분수령(分水嶺)이 3개가 있으므로 쇠치봉(鼎峙峯)이라 하였으며, 쇠치봉 분수령을 따라 울진 남대천(南大川)과 북면 부구천(富邱川)이 흐르고 있다. 중간(中間) 지역에서 특출한 인물이 난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제22절 소곡1리(蘇谷一里)[속명 : 소야(蘇野)]

1. 마을의 자연환경

많은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진 마을로 ‘열두소야’라고 부른다. 북동쪽으로는 ‘섬바우골 등미’를 경계로 주인1리와 닿아있고, 남동쪽으로는 ‘저태골 어귀’를 경계로 소곡2리와 만난다. 북쪽으로는 ‘샘당골 거랑’을 경계로 주인2리와 닿고, 남쪽으로는 ‘중노골’을 경계로 사계2리와 만난다. 동쪽으로는 ‘붉은등미’를 경계로 신화2리와 고목1리의 지정동과 닿는다. 소야마을은 평지마, 골마, 굿마, 웃마, 도록마, 웅동골, 새터, 고로기마을 등 8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당대의 명필로 이름난 한일동(韓日東)의 친필이 남아있는 거연대(居然臺)는 연재 김형문이 조성한 암반으로 이곳을 무대로 시연을 펼친 울진 유학자들의 시집이 전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소곡리(蘇谷里)라 하였다. 마을회관은 1998년에 건립되었다.

2. 마을의 역사

영양 남씨(英陽南氏)와 울진 장씨(蔚珍張氏)가 개척하였다고 전하며, 후에 안동 권씨(安東權氏)가 입주하였다고 전한다. 자연부락이 많아 12소야(蘇野)라고 한다. 12소야는 평지마, 세(間)터, 굿말, 웃마, 평밭, 골마, 복사골, 종지터, 도림마, 텃제, 옛터, 새(新)터이다.

3. 가구 분포

총 61세대가 거주하며 울진 장씨(蔚珍張氏), 담양 전씨(潭陽田氏), 영양 남씨(英陽南氏), 신안 주씨(新安朱氏), 안성 이씨(安城李氏) 등이 주로 분포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거연대(居然臺)

당대의 명필로 이름난 한일동(韓日東)의 친필이 남아있는 거연대(居然臺)는 연재 김형문이 조성한 암반으로, 이곳을 무대로 시연을 펼친 울진 유학자들의 시집이 전한다. 평지마에 소재한다.

2) 대왕산(大王山)

소야(蘇野) 앞에 있는 산(山)으로, 옛날부터 큰 소나무와 잔솔이 특별히 구분되는 산이다.

3) 성황당(城隍堂)

자연부락이 많은 마을로 성황당(城隍堂)도 3개소가 있는데, 평지마을성황당(城隍堂), 골말성황당(城隍堂), 굿마성황목(城隍木)이다.

제23절 소곡2리(蘇谷二里)[속명: 쉼실, 신곡(薪谷)]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에는 돌재가 놓여있고, 서쪽은 대왕산(大王山)이 보이며, 남쪽은 마을 앞을 흐르는 냇물이 사계1리(沙溪一里)를 거쳐 흐른다. 북쪽은 돌이 병풍처럼 펼쳐진 두리봉(峯)이 솟아 있고 마을 안에는 앞들이 있다. 남쪽으로는 ‘섬실거랑’ 너머에 있는 ‘수구덩이’를 경계로 사계2리와 닿아있으며, 북쪽으로는 ‘마주방아골’을 경계로 소곡1리 새터마을과 접하며 동쪽으로는 죽변으로 나가는 ‘돌재’를 사이에 두고 화성리 동막마을과 닿아있다. 섬실이라는 마을명은 ‘참나무가 많이 우거진 골’이라 하여 붙여졌다고 전한다. 마을회관은 2006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2010년에 조성된 소곡보건진료소가 있다.

2. 마을의 역사

1700년경에 소야(蘇野)에 정착했던 영양 남씨들이 참나무[굴참나무]를 제거(除去)하고 전답(田畓)을 개간하여 처음 개척했다고 전하며, 산(山)에 참나무가 많이 우거진 골(谷)이라 하여 쉼실(薪谷)이라 하였다.新安 주씨(新安朱氏), 강릉 최씨(江陵崔氏), 평해 황씨(平海黃